

별교고등학교 독도 지킴이 활동 내용

차시	월	일	활동 내용	준비물	장 소
1	3	23	독도 동아리 모집	게시물	지킴이 동아리 교실
2	4	6	현수막, 어깨띠, 핏켓, 패트베너, 베너 공모	종이	지킴이 동아리 교실
3	4	20	별교고등학교 독도 지킴이 발대식	아래	지킴이 동아리 교실
4	4	22	캠페인 활동 : “나라 사랑 독도 사랑”	아래	학교 현관 및 등굣길
5	4	27	학부모 초청 강연회 : “더 넓은 가슴으로 독도를 사랑하자”	아래	지킴이 동아리 교실
6	5	20	캠페인 활동 : “우리의 관심이 작아지면, 독도는 다케시마가 되어 버립니다.”	아래	학교 주변
7	5	25	캠페인 활동 : “별교고등학교는 독도를 사랑합니다.”	아래	주변 및 거리
8	5	26	캠페인 활동 : “바로 알고 알리자 우리 땅 독도”	아래	교내 교정
9	5	28	전국 중고 독도 바라알기 대회 참가(6명 참가 은상 수상)	아래	전남대학교
10	5	31	캠페인 활동 : “우리 땅 독도! 사랑의 지켜 내자”	아래	학교 주변
11	6	1	캠페인 활동 : “우리 사랑 모아 독도를 지켜 나가자”	아래	교문 및 후문 주변
12	6	3	캠페인 활동 :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	아래	학교 주변
13	6	7	캠페인 활동 : “독도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입니다.”	아래	읍내 거리
14	6	8	학부모 초청 강연회 : “우리 땅 독도! 사랑으로 지켜내자.”	아래	지킴이 동아리 교실
15	6	10	캠페인 활동 : “아름다운 섬 독도, 우리의 사랑으로 수호하자.”	아래	초등학교 주변
16	6	16	캠페인 활동 : “이마에는 독도 수호를 가슴에는 독도 사랑을 키워나가자.”	아래	등굣길
17	6	20	캠페인 활동 : “우리는 독도를 사랑한다. ”	아래	공공도서관 주변
18	6	27	캠페인 활동 : “독도는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아래	파출소주변 및 상가
19	7	1	캠페인 활동 : “독도는 국제 법으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아래	역앞 및 상가 주변
20	7	8	캠페인 활동 : “사라져가는 관심 멀어져가는 독도”	아래	교문 일대
21	7	11	캠페인 활동 : “바로 알아 지키는 우리나라 땅 독도”	아래	교문 일대
22	7	14	캠페인 활동 : “독도에게 대한민국은 영원한 고향이다.”	아래	읍내 주변
23	7	15	제7회 나라(독도) 사랑 글짓기 국제대회 참여	경시대회	내(독도)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24	7	16	독도 필통 만들기(희망 전교생)	아래	강당 및 교실
25	7	16	전국 고등학생 독도 바로 알기 대회 참가(영남대학교 총장상 수상)	아래	상명대학교
26	8	26	캠페인 활동 : “외로운 섬 독도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아래	채동선 문학관 주변
27	9	11	캠페인 활동 : “독도사랑 나라사랑, 우리가 시작해요!”	아래	시민문화체육 센터
28	9	21	캠페인 활동 : “독도야 사랑해!”	아래	아침 등굣길
29	9	26-28	독도 탐방 감상문	필기도구	지킴이 동아리 교실
30	9	28	캠페인 활동 : “독도 사랑 나라 사랑”	아래	공원및초등학교주변
31	10	5-12	독도 사랑 그림 엽서 만들기	캘리그래피	지킴이 동아리 교실
32	10	12	학부모 초청 강연회 : “독도 사랑 나라사랑”	아래	지킴이 동아리 교실
33	10	19-26	독도 사랑 책갈피 만들기	캘리그래피	지킴이 동아리 교실
34	10	24	독도 바로 알기 경시대회 1학년(78명) 2학년(69명)	경시대회	강당 및 교실
35	10	26	캠페인 활동 : “내 사랑 독도”	아래	교문 캠페인
36	10	31	독도 사랑 백일장 대회	각종 도구	각 교실
37	11	2	독도 스티커 만들기	캘리그래피	지킴이 동아리 교실
38	11	3	외부 인사 초청 강연회 : “아름다운 독도”	아래	지킴이 동아리 교실
39	11	5	캠페인 활동 : “탐내지 마라 독도는 우리 땅”	아래	생태공원 및 축구장
40	11	10	독도 사랑 작은 음악회	사탕 외	강당
41	11	11	캠페인 활동 : “태극물결 출렁이는 우리 독도”	아래	보성 향토 시장
42	11	17-21	독도 사랑 동아리 사진 및 동아리 활동, 동아리 작품 전시회	사진 및 작품	본관 현관

동아리 활동일지(4월)

주 제	독도 현수막, 어깨띠, 피켓, 패트베너 공모		
일 시	2016년 4월 6일	장 소	지킴이 동아리 교실
활동 내용			
<p>독도 현수막, 어깨띠, 그리고 피켓, 패트베너, 베너등 여러 내용을 공모하였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고 참여하여 주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모은 자료가 대부분이지만 손수 그린 작품도 여러 작품이 있었다. 문구도 매우 다양하게 제출하였으며 현수막, 그리고 패트베너도 다양하게 그려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모두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준 학생들이 너무 고맷다. 모두들 동아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앞섰지만 다 편입시키지 못한 것이 서운하다. 독도 지킴이 동아리 회원들과 1년 동안 여러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 할려고 생각하니 조금은 두렵고 걱정이 앞선다. 올 1년 동안 모두 열심히 활동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선다.</p>			
활동 모습			
			
			
의견	<p>올 1년 동안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활동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활동을 통해 우리 국토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을 길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p>		

동아리 활동일지(4월)

주 제	벌교고등학교 독도 지킴이 발대식		
일 시	2016년 4월 20일	장 소	독도 지킴이 교실

활동 내용

2016년 4월 20일 동아리 활동 “독도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동아리 회원 25명과 선생님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 동아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발대식의 첫 순서는 동아리 대표로부터 독도에 대한 선거가 있었다. 학생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키겠다는 내용으로 선서를 하였다. 행사를 마치고 독도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였다. 동아리 회원들 영상을 보기 전에는 독도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진 것 같았다. 발대식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 졌으며 발대식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고생도 많았는데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더욱더 빛난 것 같았다.

활동 모습




의
견

1.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학생 스스로 독도 사랑의 실천기회를 가져봄으로서 독도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됨
2. 독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민족적 자긍심을 함양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가진 독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동아리 활동일지(4월)

주 제	“나라 사랑 독도 사랑”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4월 22일	장 소	학교 현관 및 등교지도
활동 내용			
<p>4월인데 패딩을 입어야 할 만큼 바람이 많이 부는 아침이었다.</p> <p>하지만 우린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나라 사랑 독도 사랑’ 피켓을 들면서 독도에 대한 사랑을 알려줬다. 많은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은 왜곡된 정보를 알고 있었다. 오늘 독도동아리 활동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좀 더 독도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또 독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아 가면 좋겠다. 아직은 캠페인 활동에 서투른 점도 많지만 앞으로는 미숙한 점들을 더욱 보완하여 많은 학생들이 독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도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캠페인 활동 전에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해 설명해주려고 늦은 밤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헛되지 않아 만족스러웠고 나 또한 독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너무나 뜻깊은 시간 이었다.</p> <p>다음에는 더 많은 정보들을 들고 찾아 갈 것이다.</p>			
활동 모습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width: 30%;"></div> <div style="width: 30%;"></div> <div style="width: 30%;"></div> <div style="width: 30%;"></div> <div style="width: 30%;"></div> <div style="width: 30%;"></div> </div>			
의견	<p>쌀쌀한 봄바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사랑으로 독도 홍보 활동을 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왜곡된 정보를 학교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었다.</p>		

동아리 활동일지(4월)

주 제	“더 넓은 가슴으로 독도를 사랑하자” 학부모초청 강연회		
일 시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장 소	지킴이 동아리 교실
활동 내용			
<p>2016년 4월 27일 수요일 동아리 활동 시간에 학부모님을 모시고 독도 사랑과 근현대사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의 역사와 여러 사료에서 들어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여러 고서들과 역사서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게 들어나고 일본 항복 선언 때 민국의 제시문에도 들어 있을 만큼 명확한 우리 영토인데 왜 아직 까지도 우기고 있는 것일까?</p> <p>한국인에게 독도는 특별한 의미이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와 우리 주권을 회복하여 하나의 나라로 다시 재건되는 과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주변에 이러한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국토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것이며 독도 지킴이 동아리가 더욱 활성화 되어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였다.</p>			
활동 모습			
			
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내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노력하는 진지함이 돋보임. 2.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함. 		

동아리 활동일지(5월)

주 제	“우리의 관심이 작아지면, 독도는 다케시마가 되어 버립니다”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5월 20일	장 소	학교 주변 지역
활동 내용			
<p>요즘 사람들은 일하느라 바빠서 독도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이 점점 작아 진 다면 독도는 다케시마가 되어 버릴 것 이다. 다케시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 를 마치고 동아리 학생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어깨띠를 메고 학교를 나섰다. 오늘은 학교 주변 지역에 사 는 사람들에게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자고 알리는 목적으로 학교를 나왔다. 우리는 다리가 아파도 골목길로 하여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홍보를 하였다. 홍보를 하여 독도를 지킬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닐 것 같았 다. 홍보를 통해 우리들뿐만 아니라 별교 주민 분들도, 더욱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에 대해 더 관심 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힘들어도 선배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홍보하니 사이도 돈독해지고 훨씬 더 재미있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독도는 우리 땅!!</p>			
활동 모습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의 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도에 대한 열의가 보임. 2.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홍보에서도 열정적으로 드러남. 		

동아리 활동일지(5월)

주 제	“별교고등학교는 독도를 사랑합니다.”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장 소	학교 주변 거리 캠페인

활동 내용

‘독도 사랑 동아리’에 소속되어 독도에 관련한 공부는 물론 홍보에 앞장서는 모든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홍보의 범위는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교외의 곳곳을 순회하였으며 앞서 공부 했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피켓 과 어깨띠 등 도구를 사용하여 진파하였다.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 동아리 부원들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인지 흘린 땀방울 들은 모두 보람찬 결실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준비할 때 한데 모여 아이디어를 주고 받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동아리 부원들끼리의 친밀감과 협동심이 높아졌다. 이렇듯 보람찬 결과와 더불어 준비과정 등 등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했던 1학기 동아리 활동 이였고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느낀 독도의 바른 역사와 참 뜻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우리 영토라는 큰 자부심을 안고 생활할 필요가 있고 자칫 잠깐의 실수로 인해 독도를 빼앗기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한다.

활동 모습



의견 더운 날씨에 모두 진지한 자세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독도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며, 서로간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독도에 대한 사랑을 더욱 높여감.

동아리 활동일지(5월)

주 제	“바로 알고 바로 알리자 우리 땅 독도!”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장 소	교내 교정

활동 내용

벌교고등학교 독도 지킴이는 5월 26일 교정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도 알리기 및 독도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독도 지킴이 동아리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 활동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이해하고 독도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캠페인은 독도 지킴이 단원 등 40여명이 참여하였는데 등교 시간을 통해 진행된 독도 사랑 캠페인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다.

활동 모습



의견 독도 지킴이 동아리 단원과 독도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독도 사랑 캠페인을 전개하였는데 모두 진지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함.

동아리 활동일지(5월)

주 제	2016년 전국 중*고 독도 바로 알기 대회 (전남*광주대회)		
일 시	2016년 5월 28일 토요일	장 소	전남대학교

활동 내용

2016년 5월 28일 토요일 전남대학교에서 2016년 전국 중*고 독도 바로 알기 대회 (전남*광주대회)회가 열렸다. 5월 11일 본교 강당에서 예선대회를 거쳐 1학년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이 선정 되어 전남 광주 대회를 참가하였다. 학교 대표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내용을 토대로 경시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시험이 끝난 후 모두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험이 끝난 후, 6월1일 전국지리교사연합회 홈페이지에 시험 결과가 발표 되었다. 본교는 3학년 원대한군이 은상을, 지도교사는 지도교사상을 받게 되었으면 7월 16일(토) 14:00-16:00 상명대학교(서울캠퍼스)에서 [2016년 전국중고등학생 독도바로알기대회] 전국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활동 모습

구분	학교명	참가인원
1학년	전남대학교	2명
	전남대학교	2명
	전남대학교	2명
	전남대학교	2명
2학년	전남대학교	2명
	전남대학교	2명
	전남대학교	2명
	전남대학교	2명
3학년	전남대학교	2명
	전남대학교	2명
	전남대학교	2명
	전남대학교	2명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학년	전남대학교	2학년	전남대학교	3학년	전남대학교
2학년	전남대학교	3학년	전남대학교	지도교사상	전남대학교
3학년	전남대학교	지도교사상	전남대학교	지도교사상	전남대학교
지도교사상	전남대학교	지도교사상	전남대학교	지도교사상	전남대학교

의 견 예선전을 거쳐 본 대회 까지 열심히 준비 하였는데 처음 출전이라 그런지 자료가 없어 지도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다. 다음 준비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야 겠다.

동아리 활동일지(5월)

주 제	“우리 땅 독도! 사랑으로 지켜내자”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5월 31일	장 소	학교 주변
활동 내용			
<p>나는 내가 독도 지킴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산다. 독도 동아리에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그에 대한 사실을 널리 알리다보니 그런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p> <p>이번 캠페인은 별교 체육공원에서 하였는데 사람들이 은근 많이 지나다녔다. 여러 장소로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더 재밌고 알찬 캠페인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학교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니 재밌었다. 학생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지나다니셨는데 독도를 널리 알리는 우리 동아리를 보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다. 끝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며 일정을 마무리! 더운 날씨 때문에 마냥 재밌지는 않지만 매번 의미있는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내년 별교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동아리다.</p>			
활동 모습			
			
			
의견	모두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독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짐		

동아리 활동일지(6월)

주 제	“우리 사랑 모아 독도를 지켜나가자.”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일 시	2016년 6월 1일 수요일	장 소	교문 입구 및 후문
<h3 style="margin: 0;">활동 내용</h3> <p style="margin: 10px 0;">2016년 6월 1일 아침 등교 시간을 이용하여 독도 지킴이 동아리 회원들이 지속적인 독도 사랑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동아리 회원들은 평소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키워온 독도사랑 마음을 여러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수시로 교내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분위기가 점점 활성화 되면서 동아리 외 학생들도 관심을 보였으며 독도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 교내 학생뿐만 아닌 교내 선생님들 또한 독도와 관련하여 많은 참여와 관심을 보였다.</p>			
<h3 style="margin: 0;">활동 모습</h3>			
			
의견	<p>교내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노력하는 진지함이 돋보이며 독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함.</p>		

동아리 활동일지(6월)

주 제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6월 3일 금요일	장 소	학교 주변
활동 내용			
<p>2016년 6월 3일 아침 등교시간 이용하여 학교 주변으로 독도 사랑 캠페인을 활동을 실시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독도 지킴이로서 다른 학생들 보다 앞장 서 독도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독도 사랑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2조로 나누어 학교 주변과 인근 상가 부근에서 독도 사랑을 담은 현수막과 피켓, 어깨띠 등을 준비하여 독도사랑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앞으로의 독도사랑 홍보 활동을 위해 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p>			
활동 모습			
			
의 견	<p>거리 캠페인을 통해 독도에 대한 사랑과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p>		

동아리 활동일지(6월)

주 제	“독도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입니다.”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활동		
일 시	2016년 6월 7일 화요일	장 소	읍내 거리
활동 내용			
<p>학생들이 지난 여러 번의 독도 동아리 시간 활동을 한 후 그동안 배운 내용으로 직접 구성하고 며칠간에 걸쳐 만든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독도동아리에서 별교고등학교부터 별교 읍내까지 구호를 외치며 걸어갔습니다. ‘독도를 잊지 말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는 구호였는데 많은 수의 동아리 원들과 함께 외치니 더욱 파장이 커져 마침내 우리의 영토이자 자주권을 위협하려 하는 타 국가들까지도 들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변의 초·중 학생 친구들이 우리 동아리에서 행진하는 모습을 신기하고 궁금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는데, 피켓의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번씩 되뇌고 지나가는 모습에 모두들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으며, 정기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서 주변 지역민과 더욱 나아가 먼 미래의 우리 자손들 까지도 이 자랑스러운 사실을 가슴에 담고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p>			
활동 모습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내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노력하는 진지함이 돋보임. 2. 울릉도 및 독도탐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함. 		

동아리 활동일지(6월)

주 제	우리 땅 독도! 사랑으로 지켜내자		
일 시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장 소	지킴이 동아리 교실

활동 내용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컴퓨터실에서 독도 지킴이 동아리에서 학부모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하였다. “우리 땅 독도! 사랑으로 지켜내자”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학습 자료와 영상 자료를 보여 주었다. 강연자로 나선 학부모님께서 학생들이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 의지 강화와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최근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만큼 우리 학생들도 독도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며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활동 모습



의 교내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노력하는 진지함이 돋보이며
 견 동아리 외 학생들도 참가하여 적극성을 보임.

동아리 활동일지(6월)

주 제	“아름다운 섬 독도, 우리의 사랑으로 수호하자.”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6월 10일	장 소	초등학교 주변
활동 내용			
<p>오늘은 독도 피켓을 들고 학교를 나섰다. 독도는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다. 명백한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 나는 그런 과렴치하고 양심 없는 일본의 행동을 볼 때마다 화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든 독도를 지키고 싶지만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슬펐다. 하지만 독도동아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독도를 알리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 기뻐했다. 우리가 이렇게 피켓을 들고 플래카드를 흔들어도 당장 일본은 억지 부리는 것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다면 정말로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슬픈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독도를 더욱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한다. 벌교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알리며 아이들과 악수하며 독도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p>			
활동 모습			
			
의견	모두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음		

동아리 활동일지(6월)

주 제	“어마에는 독도 수호를 가슴에는 독도 사랑을 키워나가자”		
일 시	2016년 6월 16일	장 소	등곳길

활동 내용

6월 16일, 우리 독도 동아리는 아침 일찍이 7시부터 학생들의 등곳길에서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기에 바빴다. 조금이나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우리 독도 동아리 멤버들은 아침 일찍 줄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준비를 마쳐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추어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 동아리 주제는 ‘어마에는 독도 수호를 가슴에는 독도 사랑을 키워나가자’ 이었다. 독도 동아리 가입멤버 약 20명가량이 홍보띠를 메고 피켓을 들며 학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등교하는 학생들의 등곳길에 우리 우리의 주제를 알리기 위해 힘들어도 그 자리에 꺾이지 서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등곳길에 서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힘이 들긴 하였지만 일본과의 다툼이 있는 만큼 학생들이 역사 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생각을 하니 금방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았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독도의 중요성을 모를 것이다. 얼마나 귀한 자원이 많은지 소중한지, 역사가 깊은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심지어는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그 이유조차 모르는 채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있을지 모른다. 물론 우리의 피켓을 보고 바쁜 등곳길이기에 그냥 지나쳐갔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관심을 갖고 독도에 대해 알아봤다면 그게 한명일지라도 우리의 독도활동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관심을 더 기울일 때까지 나 역시 동아리활동에 앞장설 것이다.

활동 모습



의견

1. 독도 사랑 홍보활동에 대한 의의를 자세하게 알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의미를 되짚고자 하는 열의를 보임.
2. 독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잘 표현할 정도로, 독도를 향한 마음이 깊음.

동아리 활동일지(6월)

주 제	“우리는 독도를 사랑한다.”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6월 20일 월요일	장 소	공공도서관 주변

활동 내용

1학기말고사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동아리 활동을 했다. 시험이 코앞이라고 불평도 할 수도 있는데 학생 모두 아무 말 없이 동아리활동에 참여했다. 이 날도 역시 무더위가 기승이었다. 학교에서 공공도서관 주변까지 가는 길에 어르신 분들은 동아리 부원들을 보고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공공도서관에서는 학교와 학원이 많아서 중학생과, 성인이 많았다. 그래서 요즘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독도를 주제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해 갔다. 우리 동아리의 활동으로 무심하게 생각 할 수 있는 독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독도를 사랑해야하는 이유를 독도의 가치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열심히 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리는 데에 열심히 참여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 우리의 작은 속삭임이 퍼지고 퍼져 모두의 의식 속에 독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

활동 모습



의견

1. 중요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홍보활동을 했음.
2. 작은 목소리가 널리 퍼져 모두의 함성으로 울려 퍼지듯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독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줌.

동아리 활동일지(6월)

주 제	“독도는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6월 27일 월요일	장 소	별교 파출소 주변

활동 내용

독도 동아리 활동으로 별교읍내에 나가서 피켓 홍보를 하였다 피켓에 적힌 내용은 영원한 우리 땅인 독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독도 동아리 활동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알아야 할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지식이 생각보다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나 뿐 만이 아니었다, 친구들도 몰랐던 것들이 많았고, 새로이 알게 된 점들이 많았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다. ‘우리도 잘 모른다면 분명 별교 읍민들 또한 잘 모를 것’ 이라고.

피켓활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별교 경찰서 앞에서 진행되었다. 소중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정보가 담긴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지나가며 한번 쯤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는 것에 매우 뿌듯하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어찌던 독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가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다 그리고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지 했었던 내 모습도 떠올라 부끄러웠다. 뜨거운 여름날 띄약별 아래 힘들게 피켓활동이 진행되었지만 내 자신의 부끄러웠던 지난 모습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참여하였다.

활동 모습



의
견

1.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관심으로 직접 자원하여 홍보를 하게 됨.
2.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보며, 지난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를 가짐.

동아리 활동일지(7월)

주 제	"독도는 국제법으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7월 1일 금요일	장 소	역앞 및 상가 주변
활동 내용			
<p>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동아리 홍보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었다. 우리 동아리 부원들은 홍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벌교읍 시내로 나갔다. 시내에 나가 피켓 활동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 독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였다. 우리의 소리가 지역민들의 눈길을 끌었고, 함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반응해 주셨다. 함께 하니 더욱 홍보활동이 즐거웠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교 학생들은 독도를 향한 마음으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의 목소리가 벌교뿐만 아닌 보성군으로, 전라남도로, 더욱 나아가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들릴 수 있는 그 날 까지 우리의 활동은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p>			
활동 모습			
			
의 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보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더욱 가지게 됨. 2. 독도에 대한 사랑을 자신뿐만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파하고자함. 		

동아리 활동일지(7월)

주 제	“사라져가는 관심 멀어져가는 독도” 독도 지권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7월 8일 금요일	장 소	교문 일대
활동 내용			
<p>2016년 7월 8일 더운 날씨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다시 독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최근 일본은 일본의 중학교 교육과정에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의 이름으로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증명하였다. 이에 본교는 독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는 방안으로 교문 앞에서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켓과 현수막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우리는 최근 들어 일본이 본격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였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부는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도 잘 모를 만큼 독도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작은 소리가 더욱 큰 소리로 만들어지듯이,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홍보가 더욱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p>			
활동 모습			
			
의 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소 독도에 대한 관심으로 홍보에 열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독도에 대한 사랑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음. 2. 독도의 영유권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많이 했으며, 홍보 활동을 통해 조사내용과 더불어 독도에 대한 사랑을 보여줌. 		

동아리 활동일지(7월)

주 제	“바로 알아 지키는 우리나라 땅 독도”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7월 11일 월요일	장 소	교문 일대

활동 내용

수요일 동아리시간 우리 독도동아리는 모두모여서 각자 피켓을 들고 각 학년으로 나뉘어서 역전까지 걸었다 그날 날씨가 정말 더워서 처음에 그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 보시던 분들이 나름 호응도 해주시고 내 스스로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알림에 정말 뿌듯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하고 싶다 독도동아리에 들어오길 정말 잘 한 것 같다.

활동 모습



의
견

1. 독도를 홍보하는 것에 대한 의의를 두는 계기를 가짐.
2. 앞으로의 독도홍보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됨.

동아리 활동일지(7월)

주 제	“독도에게 대한민국은 영원한 고향이다.” (정보 동아리와 합동 캠페인)		
일 시	2016년 7월 14일 목요일	장 소	읍내 주변

활동 내용

7월14일 독도 지킴이 활동을 하기 위해 교외로 나오는데 너무 더웠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동아리원들과 같이 벌교읍을 돌아다니며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독도를 알렸다. 우리들은 독도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뿐만 아닌 홍보 활동을 하면서, 독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활동 모습



의견

1. 벌교 읍내를 돌아다니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기회에 뿌듯함을 느낌.
2. 홍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나감.

동아리 활동일지(7월)

주 제	제7회 나라(독도) 사랑 글짓기 국제대회 참여		
일 시	2016년 7월 15일 금요일	장 소	나라(독도)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활동 내용			

일본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왜곡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엄중한 이때에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알고 우위의 논리를 확립하여 독도를 굳게 지켜내려는 의지와 관심을 글로 표현하고자 참여하게 되었다. 나라 독도사랑 정신 함양과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재외 한인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독도 통일 동북아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시, 산문, 논술, 소논문, 중논문 등의 다양한 작품들로 출품하였으며, 본교 원대한 학생은 독도 논술 분야에 참여하여 전라남도 교육감 상을 수상하였다.

활동 모습










1) 목포신흥초등학교	2학년	최우석	독도 시
2) 화양초등학교	6학년	장수아	통일논술
3) 삼호서중학교	2학년	이아름	독도논술
4) 순천왕윤중학교	1학년	김래희	독도신문
5) 벌교고등학교	3학년	원래한	독도논술

의 견 제7회 나라(독도) 사랑 글짓기 국제대회에서 독도 논술 분야에 참여하여 전라남도 교육감 상을 수상하였으며 독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는 학생이다.

제 7회 나라(독도) 사랑 글짓기 대회

- 『독도』 부문 공모전 -

이름	원대한	생년월일	1998년	08월	27일
연락처	010-2518-5535	이메일	eogksdon@naver.com		
거주지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전동길 8 전동마을회관 앞				
학교정보	별교고등학교	3학년	4반	13번	
학교 주소	전라남도 보성군 별교읍 채동선로 115				
학교 연락처	061-859-0100	학교 FAX.	061-858-0041		

- 목차: 1.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인 구체적 근거
 2. 독도의 기본적인 정보
 3. 독도의 자연적인 환경
 4. 독도를 수호하려고 힘쓴 인물들
 5. 독도는 우리 땅 노래 1절
 6. 결론 제시 및 느낀 점

독도는 명백히 우리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일본에서 아무리 초등학교 조기교육을 시키더라도 변함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독도가 왜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토인지 근거를 말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독도는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세계 모두가 인정하는 울릉도와 일본의 영토인 오키 제도와의 거리를 비교해보았을 때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87.4km, 오키 제도와 독도의 거리는 157.5km인 것을 보아 지리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삼국사기를 참고하면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와 독도)을 복속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은주시정합기는 삼국사기에 비해서 약 500년이나 더 늦게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된 내용은 일본의 지방관리가 오키 제도를 둘러보고 오키 제도의 역사와 지리 등을 기록하였다는 것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나라 즉, 일본의 서북경계가 오키 제도에서 끝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에도 막부 시대의 일본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라시대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로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도 꾸준히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주민들을 직접 이주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무사라는 관직을 파견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 시대에는 울릉도가 왜구의 약탈 대상이 되자 울릉도와 독도 지역의 주민들을 조선 본토로 이주시키는 쇄환정책을 실시한 것과, 안용복 선생님의 2차례 활동으로 인하여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에도 막부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과 2-3년마다 수토관을 파견한 것을 보아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실히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에도 막부 시대가 종결되고 일본의 근대적 개화시기인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외무성이 새롭게 국가를 정비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관리를 파견했는데, 그들 중 쓰시마 섬과 부산 등지로 파견된 관리가 조사한 보고서인 ‘조선국 교제시찰 내탕서’ 중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 속하게 된 경위’ 라는 항목에서 울릉도(죽도), 독도(송도)가 조선에 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무성은 시마네 현 안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안건을 상정받아서 당시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최종 결정을 요청했는데,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태정관 지령문을 내무성에 하달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근대의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게 패배한 이후 체결한 협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중 일본 영토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물론 이 내용에서 독도에 대해서 직접 언급된 것은 없지만 한국이 서도시에 대해서 일부의 권리를 표기해야 하는 면서 한국이므로 독도는 한국이 서도시에 포함되므로 독도

에 대한 권리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의 이유를 통하여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능력을 길러야 독도가 진정으로 우리 땅으로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도와 동도를 비롯하여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도는 동도보다는 가파른 편이라 독도에서 가장 높은 대한봉이 있는 곳이고, 현재에는 김성도.김신열 부부가 거주하고 계시는 어민 거주지와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물골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에 반해 동도는 서도보다는 완만한 편이고,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선착장과, 독도를 최선을 다해서 수호하고 계시는 독도 경비대와, 유인 등대가 있는 곳입니다. 덧붙여, 서도와 동도의 신기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소의 명칭입니다. 서도는 조선시대에 독도를 지키려고 힘썼던 안용복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모든 주소의 명칭이 안용복길인데, 동도는 신라시대에 우산국을 복속했던 이사부 장군의 이름을 따서 모든 주소의 명칭이 이사부길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독도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주소의 명칭이 위인의 이름이라는 사실에 많이 놀랐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위인들이 있으므로 독도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구역도 위인들의 이름을 주소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일 수 있는데 독도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독도는 화산섬으로써 해산인데 우리가 지금 보는 독도는 실제 독도 크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독도의 자연적인 환경을 알아보시다. 독도는 섬이므로 연중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가집니다. 그래서 가장 더운 8월에도 기온이 약 25도로 서늘하고, 가장 추운 1월에도 기온이 약 4도로 따뜻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본토의 경우처럼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에는 독특한 기후 현상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바다 안개 즉, '해무' 라는 것입니다. '해무' 는 따뜻한 해수면의 공기가 차가운 해수면으로 이동할 때, 해수면 부근의 공기가 냉각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독도에서는 주로 여름 장마 전선과 동반하여 자주 발생합니다. 둘째로, '용오름' 이라는 것입니다. '용오름' 은 온도차가 큰 공기의 흐름이 섞이면서 바다 한가운데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면서 거대한 물기둥을 이루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 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토네이도' 에 비해서 '용오름' 이 더 세력이 약하고, '토네이도' 는 주로 지면 위에서 발생하는 데 반해 '용오름' 은 주로 수면 위에서 발생한다는 서로 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도를 수호하려고 힘쓰셨던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울릉도와 독도를 최초로 우리 땅으로 복속하셨던 신라 시대의 이사부 장군입니다. 이사부 장군의 성은 김씨이고, 신라 내물왕의 4세손입니다.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한 일화를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우산국을 정복하려고 이사부 장군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동해에 갔는데, 우산국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력으로는 항복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우산국에 풀어놓아 다니게 한다고 하였는데, 그때서야 우산국 사람들이 두려워서 항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조선 시대의 안용복 선생입니다. 안용복 선생님은 동래(부산) 출신의 뱃사공 겸 어부였는데, 일본으로 2번이나 가서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주장하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일본에 가신 것은 울릉도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불법 조업하는 일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일본 오키 섬에 갔는데, 그 곳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주장하고, 자신들을 납치한 부당한 행위에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로 인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일본이 약 2년동안 다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에도 막부의 수 차례 조사와 논의로 인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고,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을 내립니다. 두 번째로는 도해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와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니까 억울함을 호소하고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시킬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일본에 간 것입니다. 안용복 선생님은 '조선팔도지도' 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주장합니다. 조선 시대에 안용복 선생님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으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조선 후기에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되신 이규원 선생입니다. 이규원 선생님은 안용복 선생님의 사건 이후로 장장하던 일본의 불법 어업 행위가 빈번해지자 조선 정부에 보고하였고, 더불어 울릉도의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하는 쇠퇴정책이 조선의 국익에 전혀 이익이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이규원 선생님의 보고를 받아들인 조선 정부는 지난 400년 동안 실시되었던 쇠퇴정책을 없애고, 울릉도 관리정책을 펼쳤습니다. 넷째로는 대한제국 시기에 울릉군수를 맡으신 심흥택 선생입니다. 심흥택 선생님은 1904년 러일전쟁 시기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한 사실을 2년 뒤인 1906년에 알게 되어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서 조선 정부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1905년 을미조약으로 인해 이규원의 사신과 조선은 이번 정부에 고지적으로 차

의를 하지 못하고, “우리의 땅인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이 심히 아연할 따름이다” 라고 소극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심흥택 선생님께서 재빠르게 조선 정부에 일본의 독도 편입을 알리지 않았다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던 사건 이후에도 조선 정부는 2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야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불과 50년 전에 독도를 수호했던 홍순철 대장과 독도의용수비대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일본의 독도 침입이 빈번해지자 1953년 4월에 홍순철 대장과 6.25 참전 경험이 있는 대원 33명이 모여서 의용 수비대를 조직하고, 무단으로 상륙한 일본인을 쫓아내고, 일본 순시선과 총격전까지 하면서 독도를 수호하려고 애썼습니다. 또한, 이듬해 8월에는 동도 암벽에 ‘한국령’ 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독도 수호의 의지를 북돋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집, 가족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3년 8개월동안 독도를 수호해 온 홍순철 대장과 독도의용수비대가 있었기에 혼란스러웠던 6.25때부터 지금까지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다 알면 좋지만 다 알기는 힘들므로 1절만 알아보겠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제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내용들이 바로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이므로 현재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만한 사실입니다. 또한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1절만큼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요 10곡 들을 때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한 번만 들어봐도 숙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에 순국 선열들과 호국영령을 위해 묵념할 때,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독도를 지켰던 홍순철 대장과 독도의용수비대를 위해서도 묵념하여 주시고 10월 25일 독도의 날에는 이사부 장군, 안용복 선생님, 이규원 선생님, 심흥택 선생님, 홍순철 대장과 독도의용수비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만큼은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 일본의 허구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독도는 어떤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을지 등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여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독도가 고작 동해에 있는 조그만한 섬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애국심과 자긍심을 품어주는 존재로 생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일본아, 허구적인 주장 그만 펼치고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인정해라. 지난 역사와 현재가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증명하고 있으니,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동아리 활동일지(7월)

주 제	독도 필통 만들기		
일 시	2016년 7월 16일 토요일	장 소	강당 및 교실

활동 내용

2016년 7월 16일 토요일 독도 필통 만들기를 하였다. 전교생 중에서 필통 만들기 지원한 학생은 171명 (1학년 61명 2학년 62명 3학년 48명)과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이 참석 하여 주셨다. 토요일인데도 지원한 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 하여 주었으며,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필통 만들기에 동참했다. 필통 만들기를 통해 독도의 위치와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수고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독도 지킴이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모두들 독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며, 필통 만들기를 즐겁게 마칠 수 있었다.

활동 모습



의
견

1. 필통만들기를 통해 평소 알고 있었던 독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보냄.
2. 독도에 대한 관심으로 만든 필통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욱 애착있게 만들어감.

동아리 활동일지(7월)

주 제	2016년 7월 16일 전국 고등학생 독도 바로 알기 대회		
일 시	2016년 7월 16일 토요일	장 소	상명대학교
활동 내용			
<p>2016년 7월 16일 전국고등학생 독도 바로 알기 대회에 참가하여 하였다. 본교 원대한 학생이 서울 상명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동상으로 영남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다. 3학년이라 대입 준비를 해야 하는데 틈틈이 공부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다.</p>			

활동 모습





의견 지역 예선을 마치고 전국 대회를 준비 하였는데 3학년이라 대입준비, 기말고사 등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 온 것 같다.

동아리 활동일지(8월)

주 제	“외로운 섬 독도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8월 26일	금요일	장 소 채동선 문학관 주변
활동 내용			
<p>2016년 8월 26일 무더위 속에서 우리 동아리는 채동선 문학관에서 열린 봉사활동 대회에 참가하였다. 우리는 ‘외로운 섬 독도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라는 주제에 맞춰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가 적힌 팻말과 독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대회장을 돌았다. 대회에 참가한 다른 몇몇 학생들이 우리가 외쳤던 ‘우리 땅 독도에 많은 관심을!’이라는 구호를 따라 해줘서 더 힘을 냈다.</p> <p>특히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가 적힌 피켓에 관심을 가지던 어른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던 독도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드릴 때는 정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자부심을 느꼈고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칭찬을 받았다. 대회를 마무리 하면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플래시몹도 하였다. 정말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이었고 보람차게 대회를 마무리했다.</p>			
활동 모습			
			
의 견	<p>학생들이 동아리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진 국민 양성을 위해 작은 몸짓이지만 자라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나라사랑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꼈으며 늘 독도 사랑 나라 사랑의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체험 가능한 현장 중심의 독도 교육의 필요성을 적실하게 느꼈으며 인근에 독도에 대한 체험 학습장이 있었으면 한다.</p>		

동아리 활동일지(9월)

주 제	독도사랑 나라사랑, 우리가 시작해요!		
일 시	2016년 9월 11일 일요일	장 소	목포 시민 문화 체육 센터
활동 내용			
<p>전남 목포에서 실시한 동부권 댄스/밴드 경연대회 본선대회에 댄스부로 참여하게 되었다.</p> <p>동아리 지도 선생님께서 학교나 학교 주위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파급효과가 크고 봉사활동 시간도 부여 하신다고 하여 억지로 동아리 회원들과 봉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 댄스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독도 관련 현수막을 들고 쑥스럽지만 독도 사랑 구호를 외치며 독도 사랑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행사장에 오신 여러 어른들과 친구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지켜 보았는데 차츰 우리 행동에 관심을 보이시면 박수를 쳐주셨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을 전개하자 중학생 같이 보이는 친구들이 같이 사진도 찍고 싶다며 같이 캠페인을 전개하여 주었다. 매회 독도 사랑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독도에 대한 애착은 항상 커져만 갔다. 꼭 독도를 한번 가 보아야겠다고 친구들과 이야기 하였다. 독도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게 된 시발점은 독도 동아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사해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독도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땅이 분명하다.</p>			
활동 모습			
			
의견	<p>더운 날씨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었으며 독도 사랑 캠페인에 동아리 회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이 참여 하여 보다 더 돋보이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p>		

동아리 활동일지(9월)

주 제	독도야, 사랑해!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9월 21일 수요일	장 소	아침 등교 캠페인
활동 내용			
<p>9월 26일 우리 땅 독도를 바로알기 위해서 아침 등교 캠페인을 하였다. 독도 지킴이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독도 필통 만들기, 독도에 대한 시험보기, 아침에 하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 활동들을 통해 우리 땅 독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활동 안에서 친구들 간의 우정과 단합력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뜻 깊은 시간들이었다. 사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귀찮은 적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다양한 활동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 동아리 가입하기 전에는 독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지만 앞으로 독도에 대해 친구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활동 모습			
			
의견	<p>교내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노력하는 진지함이 돋보이고 관심있는 동아리 외 다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함.</p>		

동아리 활동일지(9월)

주 제	독도 탐방 감상문		
일 시	2016년 9월 26일~28일까지	장 소	독도 탐방

활동 내용

내가 독도에 가게 된 배경은 이렇다. 친구와 학교복도에서 여담을 나누고 있는 데 동아리 선생님께서 1반 2반이 이동수업 때문에 반이 비었다. 원래 가기로 했던 형이 몸이 좋지 않아서 독도동아리 중 내가 먼저 눈에 띄어 대신 가게 되었다. 내가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건 없다.”라고 그래서 난 운명인가 보다하고 좋다고 집에 가서 짐을 쌌다.ㅎㅎㅎ 드디어 9월 26일. 벌교에서 광주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뉴스퀘어에 도착했다. 그곳은 상상이상으로 너무 깨끗했다. 그래서 더럽히고 싶은 마음이...(장난ㅎㅎ) 그리고 동아리 선생님과 합류한 다음에 포항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장차 4시간에 걸려서 도착했다. 4시간 만에 육지를 밟아봐서 그런지 몸이 찌뿌둥했다. 몸을 좀 풀고 포항여객선터미널을 찾으려 다녔다.

한참을 헤매고 다니다가 겨우겨우 찾았다. 그다음 근처에 있는 곳에 숙소를 잡고 밥을 먹은 다음 마음도 추스르고 생각도 정리도 할 겸 포항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근처에 하는 아카펠라도 보았다. 입안에 악기를 숨긴 건지 정말 신통방통했다. 그리고 숙소에서 하룻밤 묵은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하게 끼니를 때운 후 포항여객선터미널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모여서 선플라워호를 타고 또 4시간에 걸쳐서 울릉도에 도착했다. 배안에서는 그나마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내가 배에 내려서 처음 본 광경은 웅장한 산(?)같은 게 내 눈 앞에 떡 하니 있으니 오..썰 멧졌다.... 아래 계속


활동 모습



의 날씨 때문에 일자를 변경하여 출발했으나 울릉도 독도 방문이 너무 좋았으며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 졌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좋은 경험 이었다.

그리고 배가 좀 출출해서 점심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거기에서 뜨끈뜨끈한 육개장을 먹고 이제 짐을 풀러 리조트로 향했다. 우리 숙소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앞이 흰했다. 진짜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관광버스를 타고 A코스를 돌았다. 뽕늬의 바위들이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 그중 제일 신기하게 생긴 바위는 거북이 바위였는데 옆에서 본 바위가 진짜 거북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런 다음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 독도에 관한 특강을 듣는 도중에 강사님 목소리가 달콤해서 잠을 푹 잤다. 그리고 일어난 다음 나리분지로 가서 투막집과 너와집을 볼 수 있었다. 거기에서 우리 옛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나리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데 비빔밥이 맛있을 뻔 했지만 아까웠다. 그런 후에 울릉도 호박엿을 사고 숙소에 와서 친구들과 말도 붙인 후 바로 곶아 떨어졌다. 그리고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은 다음 밑에서 밥을 먹고 B코스를 돌았다. 먼저 내수전 일출전망대에 가서 경치를 구경하는 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진짜 너무 멋졌던 것 같다. 그리고 봉래폭포로 가는데 가는 길이 정말 예뻐던 것 같다. 하..가는 도중에 비오고 땀도 비처럼 쏟아져서 기분이 상했었지만 봉래폭포가 아름다워서 한번 봐줬다. 그리고 내려와서 드리어 이번에 온 목적 독도를 가려고 준비하는 데 너무 설렘다. 배에 탑승하고 1시간 30동안 가다가 독도가 보이는 순간에 옆에서 카메라 셔터소리가 난리였다. 항상 꿈에 그리던 독도가 내 눈 바로 내 코앞에 있으니 정말 놀라울 따름 이었다.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아서 원래 독도는 2~3번 가도 안으로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우린 단번에 들어갔다는 게 정말 행운일 따름이었고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분 동안 머무르는데 내가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다는 게 좀 놀라웠다. 그리고 우리나라 땅 독도를 더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아쉬움과 미련을 남기고 배에 탑승하고 멀어져가는 독도를 가슴에 품고 다시 울릉도로 향했다. 배에서 내린 후 우린 다시 숙소로 향하고 둘째 날 저녁이 그렇게 또 흘러갔다. 마지막 셋째 날 일어난 후 밥을 먹고 케이블카를 타고 독도가 보이는 전망대로 갔지만 아쉽게도 날씨가 좀 흐려서 보지는 못 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고 이번엔 독도박물관에 가서 독도의 역사를 보고 다시 내려와서 점심밥을 먹은 후 자유 시간을 갖고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쉬움을 뒤로 남기고 배에 탔다. 2박 3일간의 여정은 정말 짧고도 길었던 것 같다. 또 4시간 동안 배를 타고 포항으로 향했다. 내리고 5분 걸어서 식당에서 친구들과의 마지막 밥을 먹은 후 인사를 하고 포항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대전을 갔다. 짐을 풀고 숙소를 잡은 후 다시 좀 대전 구경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천가는 버스를 타고 벌교에 온 후에야 드디어 모든 활동이 끝이 났다.


동아리 활동일지(9월)

주 제	“독도 사랑 나라 사랑”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9월 28일 수요일	장 소	학교 인근 공원 및 초등학교 주변
활동 내용			
<p>무더운 여름 독도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독도사랑나라사랑 홍보활동을 했다.</p> <p>독도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자는 뜻이 담긴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 홍보현수막을 들고 학교주변지역을 순회하는 것이다. 처음 현수막을 들고 돌아다닐 때는 뭐지? 라는 표정으로 쳐다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무슨 활동을 하는 건지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학생들이 여름에 고생이 참 많다며 시원한 음료수를 손에 쥐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셨다. 땀이 뻘뻘 나는 힘든 활동이었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어 즐겁게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 함께 고생해준 친구들에게 고맙고 동아리 담당 허호선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여러 사람, 친구들 그리고 내가 이번 활동을 계기로 독도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별교고 독도동아리 파이팅!!</p>			
활동 모습			
			
의견	<p>더운 날씨에 모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으며 이것을 계기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 열심히 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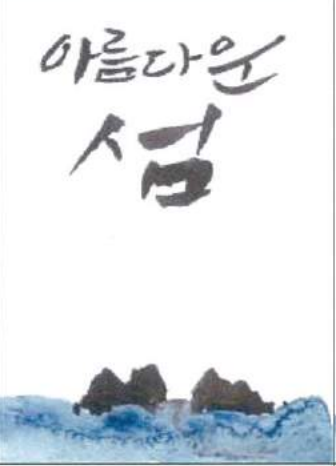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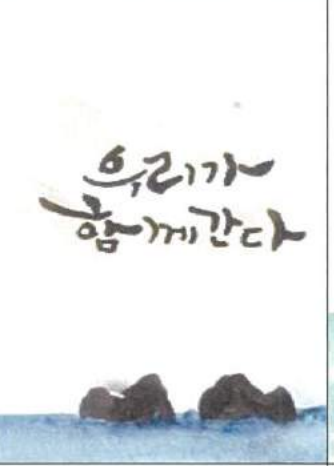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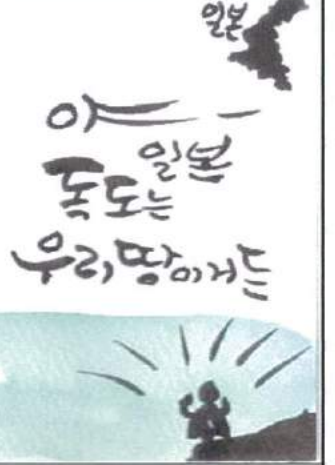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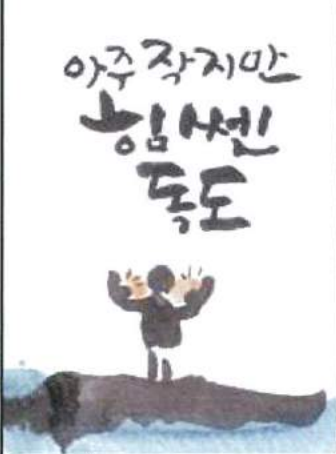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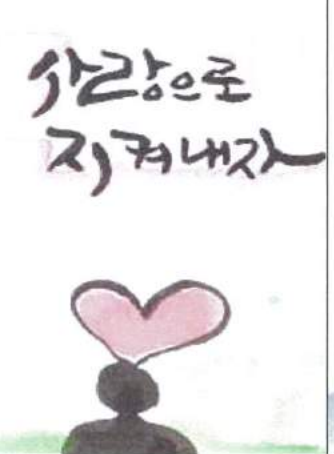

동아리 활동일지(10월)

주 제	독도 사랑 엽서 만들기		
일 시	2016년 10월 5일-12일(동아리시간)	장 소	지킴이 동아리 교실
활동 내용			
<p>지킴이 동아리 시간에 동아리 회원들과 독도 사랑 엽서를 만들었다. 캘리그래피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래도 애들이 잘 따라와 줘서 이렇게 예쁜 엽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애들이 만들면서 독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좋은 활동 이었다.</p>			
활동 모습			
			
			
의	<p>동아리 활동 시간에 캘리그래피를 이용해서 독도 사랑 그림 엽서를 만들었는데</p>		

동아리 활동일지(10월)

주 제	“ 독도사랑 나라사랑 ”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장 소	지킴이 동아리 교실	
활 동 내 용				
<p>2016년 10월 12일 컴퓨터실에서 학부모 초청 강연회가 있었다. “독도사랑 나라사랑”이라는 강연 주제였다. 10월 25일 독도의 날 유래에 대해서 강연 하였다.</p> <p>10월 25일 독도의 날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공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독도가 대한민국의 국토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p>				
활 동 모 습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우리 영토에 대해 관심이 커짐 2.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하면서 우리 국토에 대한 관심을 가짐 			

동아리 활동일지(10월)

주 제	독도 사랑 책갈피 만들기		
일 시	2016년 10월 9일-26일(동아리시간)	장 소	지킴이 동아리 교실
활동 내용			
<p>지킴이 동아리 교실에서 동아리회원들과 독도 사랑 책갈피 만들기를 하였다. 처음에는 조금 소란스러웠지만 모두 열심히 만들었다. 잘 만들어진 작품은 나중에 코팅해서 나누어 준다고 하니까 모두 적극적으로 그렸다. 동아리 회원들이 캠페인 활동도 좋지만 책갈피 만들기와 같은 다른 활동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p>			
활동 모습			
			
			
의견	<p>모두 열심히 활동하였으며 책갈피를 만들면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p>		

동아리 활동일지(10월)

주 제	독도 바로 알기 경시대회		
일 시	2016년 10월 24일	장 소	강당 및 교실
활동 내용			

2016년 10월 24일 독도 바로 알기 경시대회가 진행됐다. 1학년은 78명이 참가했으며, 2학년은 69명이 참가했다. 본교 학생들은 독도에 관한 자료집으로 경시대회를 위해 공부를 했다. 공부를 하면서 독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았다. 특히,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래는 평소 알고 있던 가사와 달리 개사가 되었다. 또한,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화산섬 이라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다. 배움을 통해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적 사료도 보게 되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료들을 보면 명칭에도 다케시마라 쓰여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역사적 사료들이 일본의 사료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점을 더욱 주장할 수 있다 생각했다. 독도 바로 알기 경시대회를 통해 독도에 대해 새로운 점을 더욱 알게 된 기회이자, 시간을 가졌다.

활동 모습



의견

독도 바로 알기 경시대회를 통해, 새롭게 배운 점을 토대로 독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알게 된 점을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가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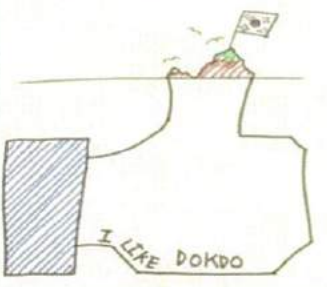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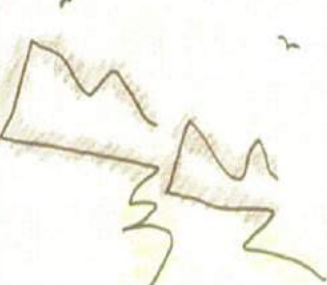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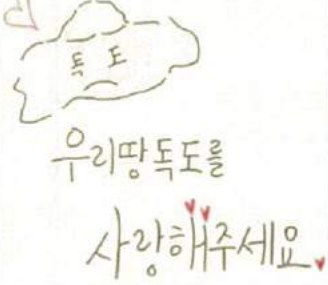
동아리 활동일지(10월)

주 제	“내 사랑 독도”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장 소	교문 캠페인
활동 내용			
<p>10월 26일 아침 교문에서 독도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여러번 캠페인 전개를 하였는데도 시작 할 때는 조금 서먹서먹하였다. 담당 선생님께서 미리 시간을 정해 주었는데 늦는 학생들이 많았다. 캠페인 활동에 관심을 보였던 학생들이 가끔 참석하였는데 무척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독도 동아리에서 독도 홍보 활동을 위해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독도 홍보 활동을 하였다. 플랜카드와 피켓에는 영원한 우리 땅인 독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독도 동아리 활동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알아야할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지식이 생각보다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나 뿐 만이 아니었다, 친구들 또한 모르는 것이 많았기에 우리(동아리원들)뿐 만아니라 학교 급우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p>			
활동 모습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의견	<p>모두들 열심히 활동하여 주었으며 특히 도로 행진 때는 교통 방해나 교통 사고 등 여러문제가 많았으나 모두 질서 정연하게 참여하여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소중한 독도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 것 같다.</p>		

동아리 활동일지(10월)

주 제	독도 바로 알기 백일장 대회		
일 시	2016년 10월 31일	장 소	각 교실
활동 내용			
<p>학급회의 시간을 통해 독도 바로 알기 백일장을 실시하였다. 백일장에서 글을 쓰기 위해선 일단 독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전날 사전 조사를 통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전 조사를 하면서 평소 내가 알고 있던 내용보단 몰랐던 부분이 더 많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독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나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 독도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도 이러한 대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p>			
활동 모습			
			
			
			
의견	<p>학생들 모두 열심히 하여 주었으며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높아 많은 작품이 출품 되어 선택하는데 많이 시간이 소요 되었다.</p>		

동아리 활동일지(11월)

주 제	독도 사랑 스티커 만들기		
일 시	2016년 11월 2일 수요일	장 소	지킴이 동아리 교실
활동 내용			
<p>지킴이 동아리 교실에서 독도 사랑 스티커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만들기 힘들었지만, 만들다 보니 재미있다. 여러 애들이 만든 걸 보니 애들 생각이 참 다양하다고 생각했다. 잘 된 것은 인쇄해서 동아리 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겠다.</p>			
활동 모습			
			
			
			
의견	<p>학생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만들어 동아리 캠페인 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모두 열심히 활동하였다.</p>		

동아리 활동일지(11월)

주 제	“아름 다운 독도” : 강사 초청 강연회		
일 시	2016년 11월 3일 목요일	장 소	컴퓨터 실

활동 내용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며 박수로 환영하라고 하셨다. 누구일까 기대와 설렘을 가득 가득 담아 박수를 열정적으로 쳤다. 들어오신 분은 독도에 대해 잘 알고 강연을 하러 오신 분이였다. 강사 선생님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다. 독도의 위치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 독도의 해양자원, 독도의 가치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까지 세세히 알려주셨다. 사실 나는 독도동아리에서 활동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독도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강연을 통해 딱딱한 수박 껍질뿐만 아니라 빨간 수박 속 면까지 알게 된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이 강사 선생님이 또 오셔서 이번 강의를 듣지 못한 친구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아, 내가 들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훌륭한 강사선생님이 많다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일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 만약 이 강사선생님이 일본어를 잘 하신다면 일본으로도 강의를 다니시면 좋겠다. 만약 꿈이 없거나 꿈을 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강사 선생님께서 독도를 알리는 독도강연자가 되는 건 어떤지 추천하고 싶다. 우리 동아리 지도 선생님이신 허호 선생님도 이번 강연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셨는지?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동아리 담당 선생님 감사합니다.

활동 모습



의견

시작은 조금 소란했지만 강사님의 애국심에 대한 호소로 동아리 회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강사님의 독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동아리 활동일지(11월)

주 제	“탐내지 마라 독도는 우리 땅”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11월 5일 수요일	장 소	벌교 생태 체육 공원 축구장

활동 내용

오늘 벌교 생태 체육 공원 축구장에 벌교고 학생들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 학교 동아리인 풋살부 전국대회 응원 겸 봉사를 갔다. 하지만 우리 독도 사랑 동아리가 그곳에 간 이유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고 독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 이다. 나는 처음으로 홍보를 해봤는데 많은 사람이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내 예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도 중학교 때 까지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말하지 못했던 터라 더욱 열정적으로 아름답고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홍보 하였다. 우리는 독도에 대해 설명된 그림을 걸어놓고 설명을 해 주었고 피켓을 들고 여기저기를 다니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렸다.. 꽤 많은 시간을 서서 홍보를 하니 다리도 아프고 힘이 들었지만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 독도 홍보가 끝나고 한 친구가 와서 덕분에 독도에 대해 알고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맙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하루 동안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오늘의 활동으로 나는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느꼈다.

활동 모습



의
견

독도 지킴이 동아리 회원들이 학교 근처에 있는 체육공원으로 전국 풋살부 경기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보러 왔는데 짬짬이 독도에 대한 홍보를 하였는데 무척이나 보기 좋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동아리 활동일지(11월)

주 제	독도 사랑 작은 음악회		
일 시	2016년 11월 10일 (목)	장 소	강 당

활동 내용

오늘은 독도 지킴이 동아리에서 독도 사랑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고 하였다. 음악회에 도착하자 많은 선배와 친구들이 모여 있다. 무대 뒤 스크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찍었던 사진이 음악과 함께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엄청 많았다. 몇 달 동안 별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독도사랑을 홍보하고 다녔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뿌듯했다. 스크린 앞에는 드럼, 피아노, 기타, 노래를 부르며 공연하는 선배들이 있었다. 무대에 있던 선배들 모두가 멋있었다. 악기를 좋아하는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 고등학교 와서 독도 동아리에 들어가 독도 사랑 작은 음악회를 가진 것은 처음 이었다. 처음인 만큼 나는 음악회가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을 뿐 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이 빠질 순 없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모여 단체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은 별교를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하고는 느낌이 달랐다. 별교를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은 움직여서 매우 힘들었지만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움직이지 않아서 힘들지 않아 기분이 좋았다. 동아리 샘이 모이라고 할 때마다 무엇을 할까 궁금하고 두려웠지만 이번 시간만큼은 즐거웠다. 1,2학년이 모여 동아리를 회상하고 또 다른 행사가 기다려 진다.

활동 모습



의견

독도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하였는데 막상 음악회가 열리자 학생들의 반응 매우 좋았다. 행사가 끝나고 동아리 외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매우 재미있었다고 하면서 독도 지킴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동아리 활동일지(11월)

주 제	“태극물결 출렁이는 우리 독도” 독도 지킴이 지속적인 동아리 캠페인 활동		
일 시	2016년 11월 11일 (금)	장 소	보성 향토 시장
활동 내용			
<p>2016년 11월 11일 보성향토시장에서 개최된 아나바다 운동은 보성지역 중 고등학생 들이 모여서 여러 체험과 활동이 가능한 공간 이었다. 그곳에서 독도동아리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독도현수막을 들고 '독도사랑'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추운날씨에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오는 날씨를 이겨내고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 학생들의 이목이 독도에 집중되었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타 지역까지 진보하여 독도라는 타이틀을 걸고 활동하는 것이 매년 뿌듯한 일이었지만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일삼아지고 있는 국가적 상황이 상황인지라 묘한 기분과 함께 뿌듯함이 배가 되었다.</p>			
활동 모습			
			
의견	<p>비도 오고 날씨가 매우 추운데도 불구하고 모두 열심히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독도 사랑”을 외치며 적극적으로 활동함</p>		

동아리 활동일지(11월)

주 제	독도 사진 및 동아리 활동사진, 동아리 작품 전시회		
일 시	2016년 11월 17일-21일	장 소	본관 현관 및 특별실

활동 내용

1년 동안 독도 사랑 지키미 단원들의 활동을 모두 정리하여 동아리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처음에 소극적으로 활동 했던 학생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자 모두 즐거워 하며 자신의 작품이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1년 동안 활동 했던 학생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번에 지키미 활동을 통해 올바른 국토관과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1년 동안 모두 열심히 활동하여 주었다.

활동 모습



의
견

독도 사진 및 동아리 활동사진, 동아리 작품 전시회를 하면서 1년 동안 동아리 회원들이 모두 열심히 활동 하여 준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회원들이 활동사진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에 매우 보람 있는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동아리 활동일지(11월)

주 제	독도 사랑 동아리 활동 알리기 신문 발행		
일 시	수시 발행	장 소	지킴이 동아리 교실

활동 내용

독도 사랑 동아리 회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알리기 위해 신문을 발행하여 각 학급에 게시하면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신문 발행을 하면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활동 모습

별고일보

너와 나의 연결고리 독도

최근 몇 년사이 일본은 역사교과서에 독도를 댈게시마라고 표기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해인과 함께 자신의 영업을 방해했다. 이에 우리 정부 측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이라는 증거를 세계적으로 밝혀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 정부에 분노했으며,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발교고등학교(이하 발교고)에서는 독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발교고 동아리 '독도 지킴이'는 매주 마칠 독도에 대한 홍보 피켓 활동뿐만 아닌 지역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홍보 활동과 함께 독도 경시대회, 독도 필독 만들기, 독도 알리기대회, 편지쓰기, 창작시 활동 등 독도를 바로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리를 참가하는 학생들은 처음에는 독도에 대해 잘 몰랐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도를 자세히 배우게 되었으며, 독도를 향한 사람과 애정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전해왔다.



- 학교 교내 독도 바로 알리기 (독도 경시대회) 이루어짐.....




발교고에서 진행된 독도 바로 알리기 경시대회는 많은 학생들을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독도에 관한 내용으로 총 30문항을 시험으로 냈다. 1학년과 2학년이 시험을 응시했으며, 응시율은 높았다. 시험을 보고 난 후 학생과 인턴부들 해 보였다.

Q. 시험은 어떤가요?
 A.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Q. 어떤 시험을 통해 배웠을까요?
 A. 평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만 생각하고 그에 미달한 증거들은 몰랐어요. 알면서 하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독도 시험을 통해, 왜 독도가 우리나라 영인지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일본에서 독도를 자기네 영이라고 우릴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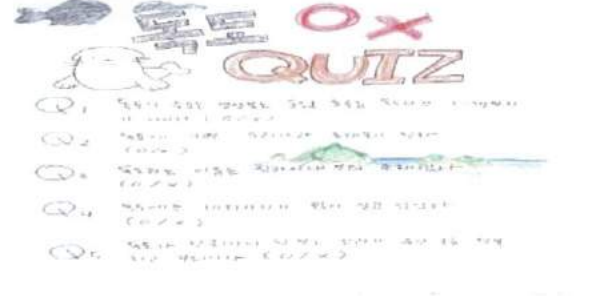
인터뷰에 통해 준 학생과 마친가지를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 독도에 새로운 지식과, 바로 알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발교고, 전국 독도 바로알기 경시대회에 입상하다



2016년 광주, 전남 대회로 열린 전국 중·고 독도 바로 알리기 대회에서 발교고는 입상을 하였다. 특히 경시대회에 입상하며 더욱 나아가 전국대회로 입상을 한 원대한 공은 이번 독도 경시대회를 통해 평소 그날 우리 동아리라고 자신있게 말하였지만, 그에 대한 믿을 자료가 부족했던 지난 날을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부로 통해 앞으로 머더가서 독도가 누구 영이라는 물음에 더욱 우리 영이라고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왜 너희 영이라는 물문에 합리적 치해와 역사적 합성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자신감과 흥기는 얻었다. 대한민국 사람이란 누구나 알아야 할 독도의 주인에 대해 심층있게 공부하였으며 그 결과 좋은 수상은 거두게 되었다. 나 뿐만 아닌 같이 시험을 본 후배들도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독도와 관련된 심층적 지식 더 더욱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져야 된다 생각하며, 일본의 독도에 관한 도발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라고 전해왔다.

-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자! 독도퀴즈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께 추첨을 통해 간단한 상품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독도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한 발교고 독도 지킴이 동아리는 우리의 말 독도를 위해 많은 활동을 진행해 왔다. 활동을 통해 독도가 왜 중요한지부터 우리의 영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들까지 진행되었다. 발교고 학생들의 활동으로 재학생과 선생님뿐만 아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이 전해졌을 하는 바램이다.

별고일보 김희선 기자

의견: 독도 사랑 지킴이 회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알리기 위해 학교 신문을 만들어 각 교실에 게시하면서 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조연다.